

전남대병원 코로나 확진 임산부분만 성공

방호복에 장갑 2겹 끼고 제왕절개 수술 두시간 만에 2.6kg 남아 건강하게 출산

전남대학교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임산부분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한 30대 산모 A씨를 대상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2시간여 만에 2.6kg의 남아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으며 산모는 코

로나19 증상이 완화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출산직후 시행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별도의 음압격리실에서 소아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37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인후통과 발열이 있어 전남대병원을 내원해 선별진료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국가지정음압격리병동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상태였다.

수술예정일은 8일이었지만 출산 진통이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수술실로 옮겨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은 국가지정임원치료병동과 감염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수술실, 분만실 등 관련 의료진의 체계적인 협진을 통해 이뤄진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A씨 입원 이후부터 관련 의료진들은 별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모의 응급상황 및 수술에 만반의 준

비를 갖춰왔으며, 이 같은 협진체제로 인해 응급으로 진행된 이번 수술을 혼란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날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는 최소 의료진만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료진은 수술실 밖에서 수술을 지켜보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수술을 집도한 김중은 산부인과 교수는 "방호복 차림에 장갑도 2겹이나 착용한 채 시행하는 만큼 일반 수술보다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번 환자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울산서 철로 걷던 70대 여성 열차에 치여 '중상'

7일 오전 3시 8분께 울산시 남구 상개동 동해선 철로에서 70대 여성이 열차에 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차 하부에 고립된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여성은 머리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는 덕하역에서 태화강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보수화물선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이 철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완주 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60대 남성 숨져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15분께 완주군 비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거실에서 A(6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 내부 95㎡와 집기 등이 타 3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아내가 외출한 사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소하자마자 이집저집 공사줄 300만원 주폭, 징역 2년

무전 취직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철소, 제주 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공사 줄을 마신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 시내 술집으로 들어가 공사 줄을 마셨다. 돈이 없었지만 A씨는 저녁 시간만 되면 술집을 전전했다.

약 두 달간 A씨가 제주 시내 주점을 돌며 마신 술값만 300만여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직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농민단체 간부, SUV로 광주시청 광장 진입

광주 지역 농민단체 한 간부가 SUV 차량을 몰고 광주시청 광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2명을 치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동 앞에서 지역 농민단체 간부 A(57)씨가 SUV차량을 몰고 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로를 막고 제지하려던 B(44)씨 등 시 공무원 2명이 A씨의 차량에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의 제지로 A씨는 광장 내 진입을 포기, 곧바로 집회에 참석했다.

광기대회는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으며, 농민단체는 시·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형트랙터 2대를 청사 앞 광장에 반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어기고 인도를 넘어 광장 앞까지 진출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 시화공단서 불... 베트남인 1명 부상

7일 오전 7시 56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불은 공장 3층 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베트남 국적의 A(20대)씨가 팔과 복부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공장 기숙사에서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도 농민수당 지급 시행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7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동 앞 광장에서 광기대회를 열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모 대학 유명강사로 9400여만원 지급 의혹

"8명 중 1명만 3주 수업...나머지 강사의 강의기록 없어"

광주의 한 대학이 수업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일명 '유명강사'에게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광주의 한 대학에 강의료 하지 않은 유명 강사 8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학은 8명의 대학원 강사에게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2년 6개월여동안 9400여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

또 8명 중 1명만 3주정도 수업을 했을 뿐 나머지 강사의 강의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강사는 대학원 수업 시간표와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성적표에

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의원 측은 "학교 측은 수개월전 진상을 파악했지만 방치하는 사이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등을 통해 유명 강사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토지주택공사, '자체 감리' 남발

부실시공과 안전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부분 사업현장에서 '자체감리'를 남발하고 있는데다 법적감리 인원도 절대 부족해 부실시공과 안전 우려가 커지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곳(72%)에서 자체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행법 상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셀프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LH가 시행중인 88개 현장에서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가운데 181명은 여러 현장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순 감리 인원은 407명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감리인력으로 셀프 관리감독에 나서면서 시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가구당 하자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